

사회

# GCIC 대표 등 3~4명 出禁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

## 檢, 사업비 인출 시스템 허술 사기 방조... '검코' 수사 급피치

검찰이 광주시의 한미합작투자사업과 관련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김병술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대해 최근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미국 LA기술세스트에 참여하기 위해 21일 출국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광주로 돌아왔다.

광주시의회 투자유치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이하 특위) 역시 이날 기술세스트가 의미가 없다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한다. 검찰의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전반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최근 김 대표 등 한미합작투자사업을 추진한 관련자 3~4명을 출국

금지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기술력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미국 K2사와 협상과정에서 완제품이 납품될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에스클로 계약(은행 등 제3자 계약에 의한 조건부 인출가능 계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이 사업을 '국제사기'로 규정 한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모두 건네 받아 두 달 동안 분석을 마친 검찰이 이들 관련자 이외에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경우 총인자감시 설 비리사건에 이어 상당한 파장을 물고갈 전망이다.

계자들을 출국금지시킨 것 자체가 검찰이 이 사업을 국제사기사건으로 결론지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특위는 이날 '부실 투자' 논란을 낳고 있는 3D 컨버팅(입체영상변환)과 관련한 광주시의 한미합작투자사업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특위 소속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D 컨버팅 기술의 보편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한미합작투자사업 미국 측 파트너인 K2 AM이 제시한 LA 기술세스트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한미합작사업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 경제 실적 등에 대해 책임 소재를 면밀

히 파악,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한미합작투자사업 = 광주시 출자법인인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과 미국 K2EON(K2)사가 한미 합작법인인 검코(GAMCO-Gwangju Advanced Media Corporation)를 설립한 뒤 남구 송하동 CGI센터에 미국업체의 3D 컨버팅 원천기술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미국업체가 확보한 2D영화를 3D(입체영상)로 바꿔 매년 수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감사원이 '국제사기'로 규정하 바 있다.



### 전남대 의학박물관 개관

전남대 의대 의학박물관이 21일 개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의대 의학관을 개조해 만든 의학박물관은 의료분야 교육연구 기지재 140점과 진료장비 330점, 도서 150점, 사진 65점 등 호남의 근대 의료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총 1000여점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전남대 의대 의학박물관이 21일 개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의대 의학관을 개조해 만든 의학박물관은 의료분야 교육연구 기지재 140점과 진료장비 330점, 도서 150점, 사진 65점 등 호남의 근대 의료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총 1000여점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배기운 회계책임자 구속 기소

1000만원 금품 제공·선거비 2800만원 누락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1일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나주·화순)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총 1000여만원을 제공하고 지난 5월11일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다. 선거법상 나주·화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000만원이고 배 의원은 선거비용으로 2억900만원을 신고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주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대량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배 의원은 직위를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미등록 사무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배 의원의 선거캠프 기획실장 정모(50)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신내리게 해주겠다" 성폭행

60대 무속인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1일 "신내림을 받게 해주겠다"며 여성을 성폭행한 무속인 이모(60)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담양군 한 모퉁에서 빌려간 돈 30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A(여·53)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자신의 집에서 A씨를 협박해 "빌린 돈 3000만원 중 800만원만 받겠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2년 전 자신의 점집을 찾아가 A씨에게 담양군 한 모퉁에서 빌려간 돈 30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A(여·53)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찍어둔 사진을 이용해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전자발찌 찬 채 주부 성폭행 살해

경찰, 전과 12범 40대 영장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웃 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서울 광진경찰은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42)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여·37)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A씨가 자녀를 유치원 통학차량 타는 곳까지 바라다주려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가 숨어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누군가가 싸우며 비명을 지른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A씨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40분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서씨는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 3범이며 절도, 강도상해까지 포함해 전과 12범이다.

/연합뉴스

## 니원침 (8636) 김종두



### 부모 꾸중들은 고3 투신

고3 수험생이 아파트 20층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18)군이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67)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20층 계단에서 A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 발자국을 발견했다.

인문계고 3학년인 A군은 최근 아버지에게 육군 부사관을 지원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들로나 꾸중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대낮 술취해 옷 벗고 도로에 벌러덩

○대낮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40대 도로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옷을 훌쩍 벗고 누웠다가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손모(45)씨가 지난 20일 오후 4시35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슈퍼마켓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중요 부위'를 10여분간 노출해 공연윤란행위로 입건했다는 것.

○동중 전과 1범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손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취직시켜 줄게" 대학 직원·담임교사에 사기 13억 뜯은 40대女 징역 5년

40대 호프직 여주인이 화려한 언변으로 자녀의 담임교사, 학부모, 지인은 물론 고액인 국공립대학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이미 초 사기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최근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특허를 되팔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하도록 하거나 국공립대학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5명에게 약 13억원을 편취한 김모(여·4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 특허를 사 되팔려 큰 수익

을 볼 수 있다고 하모씨를 속여 2년간 5900만원을 받는 등 투자금이나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81차례에 걸쳐 12억7626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올 초 경찰에 적발돼 지난 3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멈추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대학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교수나 국공립대학 직원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전해듣고 이를 적절히 포장한 김씨의 말솜씨에 쉽게 속아넘어갔다.

법원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 특허에 투자할 의사 능력도 없이 3년 여간 사기극을 펼친 이 '간 큰' 여인에게 "엄벌에 처해 경각심을 일깨워 줌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지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대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2-160호

## 청년창업지원사업 하반기 주관기관 및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광주지역 예비 청년창업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창업분위기 조성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2012년도 청년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2년 8월 10일

###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가. 목적: 광주지역 청년창업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창업분위기 조성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나. 지원 대상 자격조건: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 및 연구소 등 창업보육 역량을 갖춘 기관  
○ 주관기관 주요 업무 내용  
-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멘토 연계 - 사업수행에 대한 과제와 종합관리  
- 예비 청년창업자의 관리·운영·정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사업의 중간 최종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관리(영업률, 매출액, 고용 등 성과관련 통계)  
-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주관기관은 예비창업자 모집 후 총괄기관에 접수  
\* 최종 선정된 40개 예비 기업으로 주관기관 선정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모집 및 지원  
- 주관기관은 예비창업자 접수기간 내에 모집하여 총괄기관에 접수  
- 총괄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40명을 선발  
- 1개 예비기업 당 창업자금 10,000천원 ~ 20,000천원까지 차등지급  
○ 창업 관련 교육 지원  
○ 사업 완료 후 창업패스트트랙 개최  
\* 예비창업자는 보유장비 및 이전 가능 기술 목록은 희망 주관기관에 사전 문의

**2. 예비 청년창업자 지역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에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1973. 1. 1. 이후 1995. 12. 31이전 출생한 청년으로서 별도의 협약기간 내 광주광역시 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선정된 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창업 준비 가능한 자  
○ 선정된 후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자  
나. 지원가능 분야  
○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의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등

**3. 신청기간 및 신청서 제출방법**  
○ 예비창업자 → 주관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산하협력부  
- 신청기간: 2012. 8. 13(월) ~ 2012. 9. 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인접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배부: 신청서 제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제출자는 광주지역 내 주관기관을 참조하여 희망하는 주관기관 선택 후 주관기관 담당자의 협의하에 창업과제 사업과 계획서를 작성  
\* 지역 내 주관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bi.go.kr 참조

**4. 제출서류 (이래 순서대로 편성 제출)**  
가. 예비창업자 → 주관기관  
○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서 및붙임 자료(창업계획서 작성 후 및붙임)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증명자료(해당신청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특허 출원 및 등록 확인가능 증명서 등  
나. 주관기관 → 총괄기관(광주테크노파크)  
○ 주관기관 신청서 1부.  
\* 신청서 및붙임 자료(주관기관 보육역량현황표 작성 후 및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증명자료(해당기관에 한함): 중소기업청 우수등급(S, A등급) 지정 확인가능 증명서 1부.

**5. 문의처**

문 의 처	담당자	연 락 처	비 고	
		전화(062)	이 메 일	
광주여자대학 산하협력부	이병연	950-3785	kwbi@kwu.ac.kr	디자인, 정보통신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박경원	520-2580	dcbbjpk@dk.ac.kr	공산업, IT산업, 녹색산업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지원센터	조경진	715-2593	jin0331@gist.ac.kr	공산업, IT융복합 신소재에너지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 훈	530-5058	amin@cibi.or.kr	바이오헬스 신소재개발 IT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황성아	230-7668	hsc55@chosun.ac.kr	엔지니어링, 광응용, 친환경부품소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김시내	523-6028	kwae6028@hanmail.net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김해미	605-9277	sjwook@koptire.kr	공산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명서	232-1255	psoc@gict.or.kr	IT, 문화콘텐츠
호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문영선	940-5622	bi@honam.ac.kr	전기, 전자, 정보통신
광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김경심	670-2870	gubi@gwangju.ac.kr	공산업
광주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김지훈	958-7841	kwbi@ghc.ac.kr	의료기기, 의료용구
서연대학교	박방권	520-5032	bgpark@sk.ac.kr	지식서비스업
송원대학교	복선미	376-5841	sbi@songwon.ac.kr	자동차, 기계, 전자, 전자, 공산업
조선이공대학	박양우	230-8160	changup@cat.ac.kr	정보통신, 광, 생산자동화
광주드림파크	김지은	952-2971	ccagduji@daesungep.com	기계, 전기, 전자
광주테크노파크 산하협력부	민준철	602-7971	mjc4004@gtp.or.kr	
	전서연	602-7253	jsy@gtp.or.kr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	박광숙	613-3572	dream28@korea.kr	

가. 서류 제출방법  
방문접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